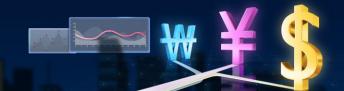
Eugene's FICC Update





Fixed Income (단위: %,bp, 틱)						
		1/8일	1D	1W	YTD	
국내채권	한국 국고채 3년물	2.505%	-0.3	-9.1	-9.1	
	한국 국고채 10년물	2.796%	0.2	-5.9	-5.9	
	장단기금리차(10년-3년,bp)	29.1	28.6	25.9	25.9	
	3년 국채 선물(KTB)	106.93	8.0	28.0	28.0	
	10년 국채선물(LKTB)	117.88	4.0	96.0	96.0	
해외 채권	미국채 2년물	4.286%	-0.7	4.7	4.7	
	미국채 10년물	4.691%	0.5	10.6	10.6	
	장단기금리차(10년-2년,bp)	40.5	39.3	34.6	34.6	

2.516%

4.502%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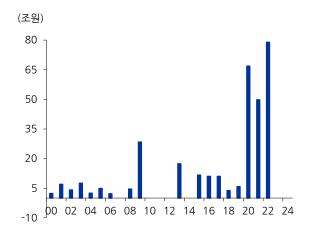
13.4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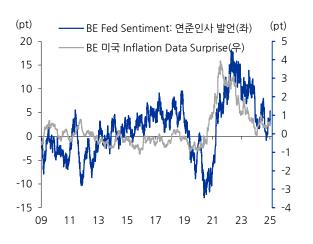
15.2

13.4

연도별 추경 규모 추이



미 연준 매파성향 및 물가 모멘텀 근래 반등



일간 금리 등락 폭 & 커브

독일국채 10년물

호주국채 10년물



국내 채권시장 동향

- 국내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전일 구인건수 및 서비스 지수 호조로 상승한 미국채 금리에 연동되며 약세 출발. 오전 중 대부분 구간에서 약세폭 빠르게 축소
- 외국인, 3년 국채선물 매수 늘린 반면 10년 국채선물 매도하며 추세 견인. 장마감에 가까워지며 점차 10년물 까지도 로컬 매수세 확대
- 야당, 추경 규모는 20조원을 출발선으로 두되 충분히 단계별로 편성해야함을 언급. 많게는 30조원까지 본 일 각의 예상에 미치치 못한만큼, 시장 영향 미미했음

전망 및 향후 주요 이벤트

- 미국 채권시장 혼조세 마감
- CNN, 트럼프 당선인이 보편관세 실행 위해 국가 경제 비상선포 검토 중임을 보도. FOMC 의사록, 대다수 위 원이 통화정책이 상당히 덜 제약적이라 평가
- 10년 금리는 장 중 4.73%까지 반등. 대신 지난해 8월 이후 최소치 기록한 ADP 민간고용 발표, 연준 측 비둘기 발언 이후 상승폭 일부 반납
- 대표적 매파 인사로 알려진 월러 이사, 연내 추가 인하 지지하며 물가는 2% 목표치 향해 하락 지속할 것이라 발언

자료 출처: 연합인포맥스, Refinitiv, 유진투자증권



FX & Commodity (단위: %, \$)							
		1/8일	1D	1W	YTD		
한율	원/달러	1,455.00	0.1%	-1.2%	-1.2%		
	달러지수	109.02	0.3%	0.5%	0.5%		
	달러/유로	1,032	-0.3%	-0.4%	-0.4%		
	위안/달러(역외)	7.35	0.2%	0.2%	0.2%		
	엔/달러	158.37	0.3%	0.8%	0.8%		
	달러/파운드	1,236	-0.9%	-1.2%	-1.2%		
	헤알/달러	6.11	0.1%	-1.2%	-1.2%		
상품	WTI 근월물(\$)	73,32	-1.3%	2.2%	2.2%		
	금 현물(\$)	2,663.30	0.5%	1.5%	1.5%		
	구리 3개월물(\$)	9,051.00	0.5%	3.2%	3.2%		

원달러 환율 및 국제유가 동향



원달러 환율 및 이동평균선



원달러 환율 동향

- 달러-원 환율은 서울외환시장에서 +1.50원 상승한 1,455.00원에 마감. 야간거래에서는 1,459.60원 마감.
- 간밤 달러 가치가 반등했으나 달러-원 움직임은 제한. 달러-원은 강보합권에서 출발해 명확한 방향성 없이 등 락.
- 전일 위안화와 엔화 등 다른 아시아 통화들은 부진했지
 만 원화는 국민연금 환혜지 경계감 속에 상대적을 양호
 한 모습을 지속.
- 장중 기재부와 더불어민주당 간의 외환시장 점검회의에서 당국은 외환변동성이 확대되면 실기 없이 적절히 대응하겠다 언급.

원달러 환율 상대강도지수



달러 지수 동향 및 관전 포인트

- 달러 인덱스는 미 연준 의사록과 트럼프의 비상사태 선 포 가능성에 강세.
- 트럼프 당선인은 보편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국가 비상 사태 선포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 속에 달러 인덱스는 한 때 109선 상회.
- 간밤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서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통화정책 기조가 상당히 덜 제약적인 수준이며, 인플레이션의 상방 위험이 증가했다고 평가. 반면 매파로 분류되는 월러 연준 이사는 간밤 공개발언에서 1년 전만큼 고르지 않지만 디스인플레이션은 뚜렷하며 정책 영향이 지속적이고 강하지 않다면 추가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발언.
- 한편 영국 파운드화는 달러 강세 속 영국 재정 악화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면서 급락.